

우리가 우리의 것에 애정을 가지고 연구를 - 이익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나다



답변자: 이익섭(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질문자: 권창섭(아주대학교 강사)

때: 2014. 7. 8.

곳: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이익섭 교수 자택

국어국문학과로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이 4년간 재학하며 가장 많이 듣게 될 학자 이름은 무엇일까? 국어국문학에서 절반의 영역인 국어학에서는 단연 ‘이익섭’이라는 이름이 손꼽힐 것이다. 1학년 때에 듣게 될 국어학의 개론 수업부터 4학년 때 듣게 될 세부 전공 과목의 수업에 이르기까지 이 이름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는 선생님께서 국어학의 여러 방면에 대해 두루 개론서를 저술하시고 또 깊은 연구 활동을 해 오신 덕이 아닐까 싶다.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또 졸업한 이의 책장 한편에는 선생님의 책이 한 권쯤은 꽂혀 있을 것이다.

이익섭 명예교수는 지금 고향인 강릉의 방언을 조사하고 또 이를 사전이라는 결과물로 내기 위해 여념이 없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준 이익섭 선생님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권창섭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세종문화상을 수상하셨지요?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이익섭 시작부터 축스럽군요. 세종의 탄신일인 5월 15일의 하루 전인 5월 14일에 수상을 하였습니다.

권창섭 퇴임하신 지 약 10년 정도 되셨지요?

이익섭 2003년에 했으니 그렇겠네요.

권창섭 퇴임 이후 펴내신 《우리말 산책》이란 책을 보면 한반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야생화에 푹 빠져 사진 듯한데요. 또 이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는 일을 즐기신 듯하고요.

이익섭 야생화에 몰입을 한 건 퇴임하고 한 1년 뒤부터였던 것 같아요. 강릉 방언 조사하는 일을 하면서 중단이 된 상태인데, 한 5~6년 정신 없이 돌아다녔어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그리고 이 섬 저 섬 할 것 없이 참 열심히 다녔지요.

권창섭 원래 야생화와 사진에 관심이 깊으셨는지요?

이익섭 퇴임 전부터 ‘나는 퇴임하고 나면 카메라 들고 야생화나 보러 다닐래.’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입문해 보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매우 많더군요. 각종 동호회들도 많고 최고급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으러 다니는 이들도 많고요. 나중에 또 너무들 많이 하니까 저도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사진은 학창 시절부터 관심이 있긴 했어요. 그때 제가 필름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소풍을 가거나 하면 제가 주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는 제 아들이 처음으로 사 주어서 입문을 하고는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었는데, 열심히 찍으며 취미를 붙이다 보니 지금은 렌즈만도 열 개가 넘네요.

권창섭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야생화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익섭 글썄요. 뭐가 있을까. 지금 생각나는 건 시비가 엇갈리는 이름인데, 개불알꽃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듣기가 좀 거북하다고 복주머니로 이름을 바꾸어 쓰기도 하지요. 토속적인 이름이 그 꽃을 보는 데에 기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굳이 우아하게 복주머니라고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시비가 붙는 이름들도 있고 재미있는 이름들도 많지요.

1. 대학 강의 현장에서 '교재'의 중요성

권창섭 선생님께서는 ≪국어학 개설≫, ≪국어 문법론 강의≫, ≪방언학≫, ≪사회방언학≫, ≪한국의 언어≫ 등 대학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위한 개론서 저술에 많이 힘쓰셨습니다.

이익섭 제가 대학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들어오면 으레 국어학을 전공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국어국문학과에 국어학 교수는 두 분(이승녕, 이희승)이 계셨지만 국문학 교수는 안 계셨거든요. 저는 뭐 입학하기 전부터 국어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2지망을 언어학과로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당시 학문적 체계는 틀이 잡혀 있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적 체계는 틀이 잘 잡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로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주제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지요.

권창섭 대학원이 아닌 학부 수업에서요?

이익섭 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면 자신의 필기 내용이 맞는지 서로

서로 맞춰 보느라 정신이 없곤 했지요. 아마 그때부터 좋은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학문적 분위기가 역사언어학이 중심이었고, 역사언어학이 중심이다 보니 음운론이 중심일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초점이 역사음운론에 맞추어져 있었지요. 저는 현대 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음운론 외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권창섭 그 배경에는 여러 학문 분야에 대한 폭넓은 관심도 심저에 깔려 있었어요. 강의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강의의 경험이 무엇보다 개론서를 쓰시는 데 가장 큰 자산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익섭 제가 전북대학교에 이른 나이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국어학 관련 교수가 저 혼자이다 보니까 국어학이란 국어학 과목은 혼자서 다 도맡아서 했어요. 일주일에 약 16시간 이상을 했던가요. 원래는 전북대학교에 이승녕 선생님께서 격주로 내려가서 수업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슬슬 고단해서 못 하시겠다고 하니 학교 측에서 추천을 부탁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석사도 안 마친 상태이고 어린 나이이다 보니 이승녕 선생님께서 물으시더군요. “자네, 잘 가르칠 수 있겠나?”

권창섭 답변하기 쉬운 질문이 아닌 듯한데요. 뭐라고 대답하셨는지요?

이익섭 “네!”라고 답했지요.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것은 왜인지 모르게 자신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자신감. 그런데 맞닥뜨린 문제가 뭐였을까요?

권창섭 바로 교재로군요.

이익섭 16시간이나 국어학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데 마땅한 교재라곤 없는 거예요. 이희승 선생님께서 쓰신 《국어학 개설》은 그 당시로는

이제 좀 낡은 축에 속했구요. 수도출판사에서 여러 젊은 선생님들이 집필한 교재도 있었는데 그건 선생님들마다 자신이 담당할 영역의 수준도 모두 달리 잡고 체제도 모두 다르고 해서 그 책을 가지고 수업하기도 쉽지 않더군요.

권창섭 국어학 개론서가 그러했으니 문법론, 음운론, 의미론 등 세부 분야에서는 더했겠네요.

이익섭 물론이지요. 책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교재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국어학 과목 모두를 제가 담당하며 가르치기 위해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 공부가 참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루고루 공부 되었구요. 한 주 내내 강의 준비한 것이 강의실 들어가서 한 시간 만에 소진되어 버리면 허무한 기분도 들었지만요. 경험이 늘고 나이를 먹으면서 강의 내용에 이런저런 다른 살들을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때는 딱 강의 내용만 이야기하다 보니 금세 할 내용이 푹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덕분에 강의 준비는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쓴 《국어학 개설》에는 기존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던 방언학이니 문자론이니 하는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는 셈인데, 아마 그 당시에 열심히 강의 준비를 했던 덕이라 할 수 있겠지요.

권창섭 임홍빈 선생님과 쓰신 《국어 문법론》이 처음 쓰신 개설서인가요?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요?

이익섭 저 스스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썼다가보다는 이기문 선생님께서 학연사라는 출판사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셨는데 저더러 문법론 관련해서 하나 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저 혼자서는 할 자신이 없어서 임홍빈 선생과 함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러 그 책의 개정판을 낼 필요가 있었는데, 원래 함께 썼던 임홍빈 선생과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새로 채완 선생과 함께 《국어 문법

론 강의》를 내게 된 것이지요.

권창섭 그다음이 대우학술총서로 나왔던 《방언학》이지요?

이익섭 그렇죠. 그때도 이기문 선생님께서 시켜서 쓴 겁니다. 덕분에 고생했지요. 《사회언어학》 같은 경우는 출판사 쪽에서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저술할 사람을 찾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응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몇몇 사람에게 권유를 했지만 하질 않고……. 그런데 제가 마침 그때 사회언어학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쓰긴 써야 할 텐데 아무도 하지 않으면 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쓴 것이지요. 그 책을 쓰는 일은 더 힘들었어요.

권창섭 그러시고는 1990년에 아까 언급하신 《국어학 개설》을 내셨지요?

이익섭 네. 국어학 개설서는 저 스스로 언젠가 써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어학 개설서가 마땅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애초에 제가 《국어 문법론》을 쓸 때 이기문 선생님께서는 국어학 개설서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국어 문법론》이 나오고도 한참 후까지 선생님께서 책을 내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개설서는 어디까지 쓰셨습니까?” 여쭙었는데, 선생님께서 못 쓰겠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쓰겠다고 한 것이지요. 한번 써 보고픈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맡아 쓰게 된 것이지요. 그 《국어학 개설》이 참 반응이 좋았지요.

권창섭 지금까지 꾸준히 국어학 관련 개론 과목의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으로 공부하고 그 책으로 강의를 했고요.

이익섭 중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도 그 책으로 미리 공부하고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권창섭 그리고 보면 참 여러 분야, 넓은 영역에서 개론서를 쓰셨습니

다. 그리고 그 책들이 지금까지 참 꾸준히 읽히고 있고요.

이익섭 ‘저 사람은 전공도 없이 이런 것 했다가 저런 것 했다가 그런 다.’라는 말도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제가 공부할 때에 학문 분위기가 너무 역사언어학, 그리고 음운론에만 치우쳐 있어서 국어학의 지평을 좀 넓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언어학》 책을 내기 전에 같은 이름으로 강의를 할 때에 매학기 전 방학마다 새로운 사회언어학 관련 원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강의의 내용들을 모아서 책도 쓸 수 있었던 것이고요.

권창섭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의 개론서들 중에서도 《사회언어학》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익섭 다른 것들보다 그 책이 읽을 때에 참 재미있지요. 여러 흥미로운 사례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사회언어학》을 읽는 이들이 그 책을 재미있어 하는 이유는 또 전반적으로 국어학계에서 그쪽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겠지요. ‘언어학에서 이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구나.’ 하는 발견이 흥미롭겠지요.

권창섭 실제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언어를 대한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다 보니 더욱 더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이익섭 네. 시험관 속에 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언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권창섭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확실해지는 듯했습니다.

이익섭 그렇지요. 그리고 사회언어학에 관심을 가지면 흥미로운 연구대상, 연구 주제도 많을 겁니다. 이정복 선생 같은 경우 얼마나 재미있게 박사 논문을 잘 썼나요? 지금도 흥미로운 문제들을 참 잘 찾아내요.

권창섭 이정복 선생은 요즘 트위터의 언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익섭 그렇죠? 이정복 선생이 저 보고도 트위터를 하라고 권유합니다.

권창섭 그런데 트위터는 무척 정신이 없어서 따라가기가, 짧은 저로서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익섭 손주들이 와서 제 아이패드에서 카톡(카카오톡)을 깔아 주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도 카톡을 하시네요?’라며 인사들이 마구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정복 선생도 인사가 왔길래 답장을 했더니 트위터도 해 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지요.

권창섭 페이스북은 어떠신지요? 그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편하실 텐데.

이익섭 페이스북 초대도 많이 받았지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트위터보다는 편하다고 하니 관심이 생깁니다.

2. 고향 말, 강릉 사투리에 대한 애정

권창섭 초반에도 말씀하셨듯이 요즘도 강릉을 중심으로 방언 조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익섭 한 달에 한 번 강릉에 가서 강릉 사투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일 정도 조사하면 10시간 정도 분량이 나와요. 그러면 와서 그 10시간 녹음분을 전사하는 데 한 달 정도가 걸리더군요. 그래서 그 전사가 끝나면 또 조사를 하러 가고 다시 와서 전사하는 식으로 반복합니다. 이러한 일을 약 4년째 하고 있지요.

권창섭 결과물로 어떤 목표를 두고 하시는 것이겠지요?

이익섭 네. 사전을 만들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많아요. 다른 목적의 연구를 위해 조사를 한다면 많아야 한 1,000개 정도 항목을 잡으면 될 터인데, 사전이란 것은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하니까 조사하는 것부터 일이 많지요.

권창섭 진척이 많이 되었는지요? 언제쯤 출간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이익섭 시작할 때는 5년 뒤 즈음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글썽요. 일이 진척은 빨리 되긴 하는데 일이 워낙 많아서 언제 마무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창섭 조사 작업은 어렵지 않으신지요?

이익섭 즐겁지요. 마침 제보자들이 잘 구해져서 조사는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연세들이 많으신데도 체력과 발음도 좋고, 방언 조사라는 것이 좋은 제보자를 만나느냐 아니냐가 성패를 좌우하는 것인데 저로선 반은 성공하고 들어간 셈이지요. 어찌나 어휘력이 풍부한지요. 제가 평생 국어학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휘력이 빈약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참 행운이지요. 음운, 형태 같은 것이 아닌 통사론적인 것을 조사하려면 말씀들을 많이 들어야 하잖아요. 또 언제나 두 분 아니면 세 분을 놓고 조사하니까 그분들도 재미있어 하시고요.

권창섭 제보자의 수는 둘 이상이 좋다는 이야기를 선생님 《방언학》 책에서 보았습니다.

이익섭 왜 그렇겠어요. 한 분의 이야기만 듣고 오판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두 분 이상이 계시면 ‘이건 저거다, 저건 저거다’ 등 논쟁을 듣고 조사자가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또 제보자들께서 흥미로워하고요. 낯선 사람과 일대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편하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다 보면 말도 편하지 않게 되

고요. 그래서 언제나 두 분 이상을 모시고 해라, 세 분까지도 좋다고 이야기해 왔었지요.

권창섭 세 분을 넘게 되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이익섭 그분들끼리만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조사 목적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빠지게 되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게다가 녹음한 걸 들어 보면 말씀끼리 물리고 겹쳐서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분 내지 세 분이 좋다고 한 겁니다. 그 정도면 화제도 풍부해지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는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권창섭 전적으로 지금 선생님 혼자 하고 계신가요?

이익섭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강릉 말은 성조와 음장이 모두 존재하는데 젊은 사람이 그걸 구별하는 데 익숙지 못하고, 또 강릉 말은 /ㄱ/와 /ㄱ/가 변별이 되거든요. 단모음으로서의 /니/도 존재하고요. 그 역시 젊은 사람이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전사를 하면 오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혼자 하고 있어요.

권창섭 후학들이 도우면서 같이 배우려 해도 그러기가 어렵겠군요. 괜히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이익섭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서도 이야기하였듯 제가 야생화에 관심이 참 많은데, 그런 관심이 생긴 뒤 사투리를 바라보니 이것들은 야생화로구나, 지금까지 내가 다루었던 국어 자료들은 곱게 보호된 화초이고 사투리들은 야생화로구나 하는 생각 말이지요. 야생화의 다양성과 생동감이 사투리에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요즘 사투리를 조사할 때 희열과 흥분이 더욱 샘솟아요.

권창섭 그런 야생화 같은 강릉 사투리의 특징 중 흥미로운 것을 몇 가

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익섭 일단 영동 지역 말과 영서 지역 말이 차이가 있지요. 영서로 가면 성조가 없고 영동은 있고.

권창섭 아까 강릉 말은 음장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익섭 우리나라를 백두대간 기준으로 동서로 나누었을 때 동쪽은 성조가 있는 지역, 서쪽은 음장만 있고 성조가 없는 지역으로 크게 이야기 하는데, 강릉은 성조와 음장의 체계가 거의 대등하게 강릉 사람의 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해요. 음장을 잘못 이야기해도 제보자가 바로 고쳐 주고 성조를 잘못 이야기해도 바로 고쳐 줘요. 그래서 저는 강릉에는 성조와 음장이 모두 대등하게 존재한다고 줄곧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 주질 않네요.

권창섭 왜 그럴까요?

이익섭 학자들이 체계라는 것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 실제의 현실을 놓치게 되지요.

권창섭 영동 지방에서도 특히 강릉만 성조와 음장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이익섭 강릉 지역은 일단 먼저 남쪽으로는 경상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테고 북쪽으로는 함경도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는 강릉에서 함경도로 돈을 벌러 많이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권창섭 그렇다면 언어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겠군요.

이익섭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강릉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옆에 다녔은 경상도에서 왔냐고 묻고 두셋은 함경도에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상도뿐 아니라 함경도 쪽 요소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언 조사하다가 어떤 어휘를 종종 국어사전에서 찾아봅니다. 이미 표준어로 등재된 항목인가 해서요. 그러면 가끔 그 어휘가 무엇 무엇의 ‘북한

말'이라고 이미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의 '북한말'이라는 것이 함경도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강릉 말에 함경도 어휘가 꽤나 많이 들어와 있고 생각보다 함경도 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권창섭 그럼 음장은 왜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음장 아니겠습니까?

이익섭 강릉이 경상, 함경 두 지역의 영향만 받았느냐, 아닙니다. 강릉은 크게 세 방향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경상, 함경, 그리고 서울입니다. 영동 지방에서 서울로 통하는 통로는 바로 강릉이었거든요. 즉, 강릉 방언은 경상, 함경 양쪽의 영향뿐 아니라 서울의 영향까지 융합되어 있는 것이 강릉 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섭 여러 지자체에서 사투리 경연 대회가 많이 열리고 국립국어원에서도 이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강릉 사투리 경연 대회가 양적 측면에서나 질적 측면에서나 가장 활발하게 그 역사를 이어 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이익섭 일단은 이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강릉 사람들이 강릉 사투리의 개성이나 특징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꼽아야 할 것 같네요. 강릉 사람들은 강릉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강릉 사람인지 단박에 알아챈다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에서 가서 강릉 말을 했을 때, 강릉 동향인들끼리는 강릉 사람인지를 쉽게 알더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권창섭 강원도 사람, 영동 사람 정도가 아니라 강릉 사람으로 세분해서 서로를 인식한다는 것이지요?

이익섭 네. 그런데 강릉 외에 전국 어디를 가도 이 정도는 아니지요. 가령 타지 사람이 “내가 듣기엔 경상남도 말이나 북도 말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하고 경상도 사람들이 “남도랑 북도 말은 서로 다르지!” 이 정도로 반응할 겁니다. 그러나 더 세분하여 가령 성주 말과 김천

말은 서로 다르다, 합천 말과 의령 말은 서로 다르다, 이 정도까지 인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강릉 사람들은요, 딱 그저 강릉 말입니다. 강릉 말은 강릉 말이라는 것이지요.

강릉 바로 남쪽이 삼척이고 북쪽이 양양인데요. 삼척 사람이나 양양 사람이 강릉에 와서 말 몇 마디 했을 때에, 그 사람을 강릉 사람이라고 혼동할 사람은 없어요. 강릉 사람 100명을 두고 그런 실험을 해 보세요. 양양 사람이나 삼척 사람이 말 한두 마디만 해도 그 사람이 강릉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겁니다. 완전히 의식을 하는 것이죠. 강릉 말이 유독 독특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경험이 다들 내재화됩니다. 그 정도로 세분화해서 자기네들 말을 의식하는 지역은 아마 강릉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어느 고장마다 자기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나 군 단위로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내는 지역은 찾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강릉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유난히 아끼는 이유일 겁니다.

권창섭 그 정도로 자신들의 말에 대한 자의식을 지니고 있다 보니 그런 행사를 보는 것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익섭 그리고 행사의 기획과 진행 자체가 훌륭합니다. 기획 자체를 재미있게 구성하고 진행 과정도 매끄럽지요. 그리고 강릉 출신의 개그맨들이 와서 사회를 맡다 보니 강릉 말을 섞어서 재미있게 사회를 보게 되어 보는 이들도 무척 즐거워하지요.

권창섭 국립국어원에서도 여러 도움을 주고 있지요?

이익섭 네. 권재일 전 원장, 민현식 현 원장 모두 참석해 주어서 감사한 일이고요. 이런저런 요소들 덕분에 올해로 벌써 21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권창섭 선생님께서도 심사 위원을 하시는 등 여러모로 관여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익섭 최근 몇 년간 하고 있고요. 초창기에도 했었는데 중간에 몇 해는 관여하지 않았습시다. 한동안 좀 재미없었거든요. 자꾸 어린 학생들을 일부터 연극을 준비하게 해서 출연시키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참 재미없었지요.

권창섭 아무래도 학습된 사투리이고 준비된 각본에 의해서 교육된 것이다 보니 맛이 떨어지겠지요.

이익섭 네. 제대로 된 강릉 사투리도 아니고……. 어떤 출연자들은 또 그렇습시다. 사투리 대회라고 하면 무대에 나와 욕설을 많이 섞으면 청중이 재미있어 할 줄 아는 분들 말이지요. 무대에서 비속어랑 욕설만 한바탕 하다 내려가시는 것이지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비판을 많이 했고 그런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방향이 많이 수정되었고, 그래서 다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팀이 한 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권창섭 혹시 대회에서 나왔던 것 중에 재미있었던 참가자나 재미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하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익섭 유명한 게 하나 있지요.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10만 양병설을 주장할 때 강릉 사투리로 말을 해서 선조가 못 알아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해서 상도 받았던 것 같아요.¹⁾ 아까 말했지만 최근에는 꾸며 낸 사투리를 사용하는 이들이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출연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투리밖에 할 줄 모르는 이들을 출연시키고 제가 요구를 했지요. 그런 이들이 나와서 꾸며 내지 않은 말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무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본디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사투리이고 진짜 삶에 대

1) 1995년 대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이청림 씨의 참가 내용이다.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권창섭 강릉 단오제 행사의 일환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익섭 네. 강릉 단오제 자체의 규모가 무척이나 큼니다. 사람들이 무척 많이 오지요. 강릉 사람들에게겐 단오가 무척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사투리 경연 대회 자체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더라도 행사가 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단오제 중에서도 사투리 경연 대회가 ‘강릉 단오제의 꽃’인 셈이지요.

권창섭 전국의 사투리 관련 문화 행사나 사투리 관련 상품들 모두 포함해도 거의 단연 최고로 손꼽히고 있는 듯합니다.

이익섭 역사가 오래되고 기획이 잘된 덕인 듯합니다. 저도 여러 아이 디어들이 많아요. ‘우리말 다루기’ 하듯이 ‘사투리 다루기’ 형식으로 해본다든가, 인간문화재와 비슷하게 ‘사투리 문화재’를 선정한다든가 등으로 말이지요.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성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3. 지금 우리의 표기법은 훌륭하다

권창섭 선생님께서 국어원 원장을 맡으셨을 때 이야기를 조금 들어 볼까요? 당시에 어떤 사업들이 주로 진행되었습니까?

이익섭 일단 제가 국어원 원장을 맡았을 때 이미 로마자 표기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고 제가 임명이 되면서부터는 서둘러야 하는 일이 되었지요. 여러 언어별로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을 만들고 수정하고 해서 최종안이 만들어졌는데 정작 공표를 하려고 할 때는 정부 차원에서 머뭇거림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어

요. 제 임기가 끝난 후에 새로 진행이 되어서 제가 원장을 맡았을 때의 최종안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표준국어대사전을 만드는 일이 당시에 막바지 작업 중이었죠. 저도 열심히 참여를 해서 검토하고 애썼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쉬운 점들이 참 많아요.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관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도 많이 하지만 제가 또 그곳에 남아 있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수많은 항목 전체를 제가 다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사전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맞춤법이나 문장 부호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병행되었습니다. 특히 문장 부호에 대한 작업은 꽤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출판사들의 항의로 결국 공표가 되진 못했지요. 새로 출판하는 것들부터 적용을 하면 될 문제인데도 반발이 심해 불발이 되었던 것도 아쉬웠습니다. 맞춤법도 당시에 띄어쓰기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고쳤지요. 가령 중학교와 대학교는 붙여 쓰고 고등학교와 국민학교는 ‘고등 학교’, ‘국민 학교’로 띄어 쓰는 등이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붙여 쓰는 것으로 개정했지요. 사전 작업을 위한 일환으로 표기법에 대한 개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권창섭 표기법으로 석사 학위 논문도 쓰시고 저서도 쓰시는 등 표기법에는 원래 관심도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섭 이기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표기법을 관찰하는 눈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대의 언어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의 표기법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표기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표기법으로 석사 논문을 쓰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나중에 정신문화연구원²⁾에서 표기법과 관련해서 글을 한 꼭지 써 달라는

의뢰가 와서 다시 표기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당시까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이후에는 표기법이 이른바 무정부 상태였을 거라고 추측되어 왔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시대별로 누군가가,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표기법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규정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시기가 되면 이렇게 바뀌고 다음 시기가 되면 저렇게 바뀌고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표기법에 관련된 책까지 내게 되었는데³⁾ 그것도 어떤 연유가 있어서 쓰게 되었을 텐데 어떤 연유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권창섭 표기법은 실제 언중의 문자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부분이라 그 중요성이 매우 클 텐데 국내에서 연구가 활발한 편은 아니었지요?

이익섭 이론화가 잘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었죠. 한글이 우수하다는 말은 많았지만 이론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글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서구에서는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에 대한 극찬이 있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모아쓰기의 우수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도리어 버려야 할 것이라는 취급을 받기도 했지요. 최현배 선생님이나 주시경 선생님도 풀어쓰기를 주장하셨고요. 남은 그것을 칭찬하는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다 잘했는데 모아쓰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세종대왕이 다 잘했는데 특히 모아쓰기가 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또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놓고도 이론적으로 무엇이 낫다는 논의가 미진했던 편입니다.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2)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3)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시작되었던 것이 이기문 선생님의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연구”인데요. 그때까지 논의가 대니얼 존스(Daniel Jones)의 주장을 바탕으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방향이었습니다. 표기를 보고 음성으로 빨리 변환할 수 있는 것이 좋은 표기법이라는 것이고 이기문 선생님도 그 책에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보다 중세 국어 시기의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식이 더 훌륭한 표기법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1980년쯤에 한글 맞춤법을 다시 고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학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오갔죠. 그때 표음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기문 선생님의 위의 책을 바탕으로 이기문 선생님도 표음주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자신들의 주장의 뒷받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기문 선생님께서는 그 책 쓰실 때까지 그런 태도였지만 나중에 태도를 바꾸셨거든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표음주의보다 표의주의 표기법이 낫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논의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덤벼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심정적으로는 표의주의가 낫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는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권창섭 그런데 찾아내신 거로군요?

이익섭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어느 책에서 바첵(Vachek)이라는 학자가 글을 쓴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식 표기법이 낫다는 말과 함께 설명이 있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였죠.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또 심리학적 연구도 참고를 하고 했지요.

권창섭 그렇다면 표음주의보다 표의주의가 더 나은 표기 방식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익섭 일단 표음주의를 선호하는 쪽의 이론적 배경을 되짚어 보면 아

리스트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문자라는 것은 소리의 대행물이므로 소리와 가까울수록 좋다는 것이지요. 표기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음성 신호로 변환하는 중간 과정이 필수라고 보니까요. 그게 아까 말한 대니얼 존슨에 이어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까지 내려온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쓰지 말자는 입장에서든 마찬가지로의 근거를 들지요. 어차피 소리로 환부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굳이 한자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한글로만 써도 충분하고 오히려 독해하기 더 낫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척의 이론에 따르면 문자가 소리로 환부호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아이콘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그림 문자와 같은 기호들을 보면서 소리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 의미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자에도 그런 아이콘과 같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창섭 글자를 처음 배우는 처지에서는 그래도 표음주의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소리와 함께 문자를 배우는 방식 말이지요.

이익섭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숙달되고 글을 많이 읽는 사람을 기준으로 표기 방식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지 처음 글자를 더듬더듬 배우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표음에는 다소 불충실하더라도 독서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은 표의주의인 것이지요. 문자는 귀가 아니라 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⁴⁾ 또 한편 표음주의를 우선하는 이들이 ‘받아쓰기’를 논거로 들기도 했어요.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받아쓰기’ 테스트를 해 보아도 ‘받아쓰기’ 실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현행 표의주의식 표기법이 좋지 않다

4)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익섭, 《국어학개설》(학연사, 1986)를 참조할 수 있다.

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험이 있었
고요. 표기법을 평가하는 기준을 ‘쓰기’에 둔 것입니다. 중국에서 간체
자를 개발한 것도 ‘쓰기’가 어렵다는 측면에 기인한 것이구요.

그런데 표기 방식을 평가하고 또 규정하는 데 ‘쓰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읽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생각해 보면 전 ‘읽기’여야 한다
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쓰기’는 며칠 동안에 한 글자도 쓰지 않는 사
람들이 많은 반면,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읽기’는 수없이 하지 않겠습
니까. 그러므로 ‘읽기’에 초점을 두어야지요. 쓰기에 좋은 문자가 아니
라 읽기에 좋은 문자가 되어야 합니다.

권창섭 ‘읽기’에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익섭 발음과는 무관하지요. 눈으로 들어온 것을 빨리 의미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읽기에 좋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언 조사를 하고 있으
니 하는 말인데, 녹음 자료들을 듣고 그 문자화를 일반적인 표기 방식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방언 조사한 것들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 놓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발음은 알
수가 있지만 정작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요. 그렇다면 읽기에 불
편한 것 아닙니까? 한 형태소를 달리 발음될 때마다 달리 적는 것이 아
니라 그 표기를 고정해 놓아야 읽기가 편하지요. 특히 겹자음을 가진
‘흙’ 같은 경우 뒤에 다른 조사가 올 때마다 ‘흙기, 흑또, 흥만’ 등으로 매
번 달리 적는다면 그곳에 ‘土’를 뜻하는 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쉽
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형태소의 표기를 고정해서 매번 ‘흙’이라
고 표기하면 한눈에 ‘土’의 의미로 연결하기 쉽겠지요. 풀어쓰기를 하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는 것보다 모아쓰기를 하고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하는 것이 ‘읽기’에 더 좋은 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권창섭 〈훈민정음〉 창제 당시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은 표

의주의식 표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표음주의식 표기가 된 것과는 관련
된 이야기인 듯합니다. 그 당시 세종께서도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종께서는 표의주의식 표기법을 더 원하시지 않
으셨을까요?

이익섭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세종의 머릿속에는 지금과 같은 식의 표
기법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권창섭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자와 표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흥미로
운데요. 왜 문자론과 관련된 개론서는 안 써 주셨는지요.

이익섭 그렇지 않아도 한때 개론서를 써 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
습니다. 지금은 늦은 일이겠지만요. 참 재미있는 분야이기는 하지요.

권창섭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어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이나 후학들
에게 해 주실 말씀이 없으신지요.

이익섭 글썄요. 최근에는 후학들의 논문들을 잘 읽지 않게 되어서 말
이죠. 꾸준히 (후학) 논문들을 읽으면 좀 뭐라도 해 줄 말이 있을 텐데
워낙에 논문들이 많고 그래서 잘 읽지 않게 되네요. 저희들 세대 때에
비해 학회들도 많아지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발전을 많이 해서 제
가 굳이 이래라저래라 이런 말들을 할 필요가 없지요.

권창섭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전히 선생님의 고견들을 기다리지 않을
까요.

이익섭 이렇게 찾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요.

권창섭 오랜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이익섭 저도 즐거웠습니다.